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수 신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행복바라미 모금 사후평가서 제출 건

1. 귀의삼보하옵고,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포교사단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불포사단 제 2019-056호
3. 청주지역과 보은지역 모금행사실시한 팀장들의 소견서와 단장소견서 첨부합니다.

*별첨 : 단장소견서1부 ②팀장소견서3부 ③모금집계표 1부

끝.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충북지역단장



사무간사: 권남희 사무국장: 양영미 수석부단장:김명동 부단장:김경애,류명구,민채근 단장: 김영석

문서번호 대불포충북 대불포 제12호 (2019.5.31.)

우 2853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북로 121 2층

전화 (043) 265-1080/ Fax:043-266-1080

단장소견서

행복바라미 모금행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어느 팀이 얼마나 모금을 하였는가이다. 그러다보니 은근히 모금액에 대한 선의의 경쟁심도 생겼다.

항상 모금액이 상위인 팀 경우는 행복바라미 모금행사 준비를 전년도부터 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복바라미 취지와 모금권유를 하면서 사람들 발길을 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모금비의 실적향상을 염두에 두기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금액으로 많은 불우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 나름 보람과 성취감이 생긴다.

그러나 시간과 정열을 모금행사준비로 쏟아붓는 것은 포교사로서 좀 아쉬운 게 있다. 또한 행복바라미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님과 불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불미스럽게도 외면받고 있기도 하다. 집안에서 이런데 밖에라야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은가. 이것은 소극적인 포교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행복바라미 홍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마다 터져나오는 문제이다.

구세군과 같은 타종교의 행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아니다.

불교는 불교의 특성이 있다. 그런거 무시하고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의 행사는 지리멸렬해지며 불신감만 조성한다.

포교사단과 중앙신도회의 각고면려의 혁신과 자구책을 바란다.

중앙신도회[조계종 중앙 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주최로 행복바라미 문화 대축전 개최] 라는 문구를 접할 때 사찰의 신도도 일반인도 중앙신도회가 낯설을수 있다. 나도 포교사 시험에 나오기 전에 중앙신도회를 몰랐으니깐. 시골에 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시에서의 모금과 지방에서의 모금의 차이를 모르기에 몇자 적는글이 공감이 될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단지 개인입장에서 적어보기로 한다.

사찰의 입장에서는 신도회 주관으로 모금운동을 실시하면 집안행사가 되고 또 사찰에 들어가는 각종기도비와 수시의 보시금도 만만치 않음에 신도에게 또다른 보시금을 말하기에 사찰의 입장도 어려움기에 불자와 일반인에게 홍보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포교사단이 실시하게 되었나 생각한다.

요즘 일반인들은 모금단체들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부적절한 집행)이 있기에 모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여 홍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전에는 총무원장님과 중앙신도회장등 여러분들이 모금하는 사진의 현수막 있어서 모금장소에 설치하니 모금에 믿음을 주기도 하였으나, 한번밖에 오지 않았고, 작년인가는 행복바라미 모금한다는 현수막을 사찰에서 걸어 주기도 하였지만 다른행사로 몇일만에 철거되어 현수막을 다시 보지도 못했다. 스님들과 신도회의 성금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앙신도회의 불교모금행사가 아니라 포교사만의 모금행사가 되어 버린것 같다.

묵묵히 우리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려 모금에 동참하신 포교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간단히 글을 마친다.

행복바라미모금행사 사후 평가서

1. 장소도 협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도 어렵습니다.
 2.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포교사들의 인식이 나빠져 안좋습니다.
 3. 모금하는 부분도 각각의 포교사님들의 보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4. 모금금액도 팀별로 할당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를 원합니다.
-
-
-

일시 :2019년 4월 15일(10:00~14:00)

장소 : 청주시 성안길 산업은행 뒤

나뭇잎들이 싱그러운 연둣빛으로 산하를 물들이는 월요일 아침.

성안길에는 건강을 위해 또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거나 연인과 월요일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남은 여생을 즐기듯 한가롭게 벤치에 앉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활기가 넘치는 성안길 음악과 함께 일상생활이 분주하다.

오전 10시! 우리(불교문화팀) 일행은 행복바라미 모금을 위해 산업은행 뒤쪽에 자리를 잡고 팀장님을 필두로 모금에 나섰다.

일부 팀원들은 자비의 손길을 찾아 각자 맡은 소임대로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홍보용 팜플렛과 자체 준비한 사탕이며 초코렛 기타 등등

어린이는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포교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모금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의 침체된 탓인지 모금이 쉽지 않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연세 지극하신 분이나 어린 자녀를 손잡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작은 어린이는 까치발을 한 채 고사리 손으로, 나이 많으신 분은 가던 걸음을 돌려 모금함에 동참해 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안길 찾은 사람은 많아졌지만 보수적인 성격 탓인지 모금함에 손길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적어 아쉽기만하다.

오히려 못본척 그냥 지나치거나 오던 걸음을 애들러 지나가는 모습도 눈에 띈다.

팀원들이 조금씩 힘들어 할 무렵 부단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다.

격려방문에 재충전해서 큰 힘을 얻고 다시 부처님 법음을 전하며 자비의 손길을 찾아 모금활동에 나섰다.

휴식도 없이 시간은 흘러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을 뒤돌아 본다. 모금을 위해 우리 불교문화교 팀원들 모두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마음도 뿌듯하다.

마지막으로 개선해야 할 일은 전국 각 사찰 주지스님 이하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욱 더 뜻있는 행복바라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복 바라미에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_()

첨부파일 1 - 2019.충북지역단 행복바라미 모금현황

월일	청주		보은		영동		북부	
	금액	팀명	금액	모금장소	금액	모금장소	금액	모금장소
4월14일					516,000원			
4월15일	344,330원	청주불교문 화봉사팀						
4월17일	209,530원	병원봉사팀						
4월18일	111,200원	충북사무국						
4월19일	535,540원	청주군포교 3팀			270,000원			
4월20일	285,050원	청주염불포 교2팀	780,000원				555,000원	충주공설 운동장
4월21일	1,414,000	청주군포교 1팀	546,300원		174,000원		209,000원	충주버스 터미널
4월23일	312,500원	청주지역봉 사2팀						
4월26일			616,000원					
4월27일			427,900원				764,000	석중사
4월28일			394,100원		362,000원		320,000원	
4월29일			369,380원					
5월5일			240,600원					
5월11일			365,300원					
5월12일			263,000원					
총액	3,212,150		4,002,580		1,322,000		1,848,000	
전체모금액	10,384,730원							